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4일 (음력 11월 29일) 금요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인력 채용 '허점 투성'

광주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이 인력채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허점을 드러내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신규 직원 5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위원 구성과 면접심사 운영을 부적절하게 진행했다가 기관장 경과와 함께 관련자 4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재단 측은 일반직 6급 행정분야 지원자 92명 중 23명, 무기계약직 지원자 24명 중 4명이 재단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자임에도 같은 재단 관계자를 심사위원단에 포함시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

동일기관 간부가 현 근무자 등 평가공정성 시비 심사위 멋대로 구성·주관적 평가·무원칙 선발

다. 1차 서류심사 결과, 일반 행정 합격자 33명 중 11명, 무기계약직 10명 중 4명이 재단 근무자 또는 경험자로 확인됐다.

3차 면접 심사에서는 인사운영 계획상 응시자의 출신지나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면접위원들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토록 돼 있으나 면접 과정에서 특정인의 재단 근무 경력이 심사단에 고스

란히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재단 근무자 A씨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또 다른 근무경험자 B씨는 무기계약직 면접자 중 최고 점수를 받아 나란히 최종 합격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8월, 일반직 6급 10명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심사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도 없이 내부 인사 1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자체 판단으로 지원자 228명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를 결정했고, 장애인 우대조항도 1차 전형에 한해 면접의 5%만 적용토록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2명이 경과처분됐다.

또 광주그린카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 과정에서 채점표에 심사위원 서명이 누락됐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없이 합격 처리했고 환경관리 분야 사무원의 경우 별도의 지원자 수가 없다고 공고했음에도 1차 서류심사 때 실무경력과 역량, 직무수행 능력 등을 3명의 평가위원이 임의대로 평가토록 해 신뢰성을 상실했다.

그 결과 평가위원 개별점수가 최고 80점, 최저 46점으로 34점이거나 차이나는가 하면 경험부족과 불충분한 서류 제출 등으로 3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부터 50점을 받은 특정 지원자가 합격처리되는 등 무원칙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 산하 4대 공기업 중 하나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규정상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고 외부위원은 채용위탁업체를 통해 인력풀을 활용토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사장이 직접 위촉 또는 지명한 3명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해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은 인사위원회 의결조차 없이 신규 채용을 진행했다 감사에 적발됐고, 5·18 기념재단연구소는 석사급 이상 연구실장을 채용하면서 자격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5·18 연구 실적도 없고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경험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선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들 기관에 대해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규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홍 기자



"우리 교실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3일 오전 대구 동구 과전동 송정초등학교에서 예비 1학년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Photo漫評

우향우

당원의 해를 맞은 자유한국당내에 '우향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경제계 당원주자들이 일제히 보수표 결집을 위해 경쟁발언을 쏟아내는 데다, 나경원 원내지도부도 한양 강경 대응으로 취임 초 '기선 잡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한 만큼 예비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예비 당원주자들은 2일 보수 본산인 대구·경북TK에 집결했다. 심재철·정우택·주호영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원 도전자에 상당수는 인사들이 보수표 결집을 위해 대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일부 예비주자들은 여러 시·도당 신년행사에 나타나는 등 '동에 반쪽 사에 반쪽' 분주했다고 전해졌다. 관련 인사의 속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오세훈



정우택



유승민

함평·영광 내만 저수온...양식생물 피해 우려

지난해 동기비 0.5도 낮아 어장관리 필요...면역력 높이고 조기 출하해야

전남 지역 일부 해안이 저수온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겨울철 한파로 함평과 영광 연안의 내만 수온이 2~4도, 목포, 신안, 해남 해역 수온이 5~6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이날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도 정도 낮아 철저한 저수온 어장관리가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도 이하의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된 충남 태안군~서산시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양식생물은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료 섭취와 소화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8도 이하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져 심할 경우 폐사할 수 있다. 특히 농성어, 돌류, 조기, 쥐치 등은 저수온에 취약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서는 사료 공급량 조절, 비타민제·영양제 공급 등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저수온에 약한 양식생물은 조기에 출하해야 한다. 해상가두리와 축제식 양식장에서는 환수와 풍파에 대비해 시

설물을 안전점검 해야 한다.

양식장 평균 수심을 3m 이상 유지하고 수면적의 1% 이상을 별도 구획해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사육해야 한다.

또 육상양식장은 폭설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대비하고 양식생물이 동사하지 않게 보온덮개, 보일러 등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정전 발생에 대비해 비상발전기 가동 여부를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한다.

김정환 기자

KRFC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